



전주 삼천방벚꽃이

익산 금매저수지

정읍 활영습지

영주 드림생

영일 성수산

순창 장군목

고창 운곡습지 생태연못

군산 죽한길

남원 구룡계곡

김제 백곡계

완주 화엄사 산책로

진안 마이산

무주 구룡동 계곡

부안 생태연못

## 지질공원·생물군락지·경관자원·생태관광기반 4개 유형 나눠 주변 관광자원 연계, 방문객 이끈다

전북발전연구원 2013년 수행한 '생태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자원조사 연구'에 따르면 도내에는 234개의 생태자원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이 126개소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271개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생태자원이 도내 곳곳에 있지만, 문제는 이들 자원이 분산돼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요 생태자원을 주변의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가 생태관광 추진과정에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 관광지**  
도내 14개 생태관광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질자원이 우수한 지질공원으로 추진가능한 지질공원형으로는 진안의 지오파크가 있고, 식물 동물 곤충 등 우수한 생물자원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생물군락지형으로는 삼천방벚꽃이 생태마을(전주)과 금강 발원지 생물생태코프(장수), 운곡탐사로 습지(고창) 등이 있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관자원형으로는 정암산 에코랜드(군산)와 백곡계 농경생태원(김제), 경천 심그림이 에코빌(완주), 삼천강 장군목(순창), 신순원 수생생태정원(부안) 등이 있으며, 생태유식공원과 생태탐방연수시설, 생태로탐방, 산림휴양레포츠 등을 갖춘 생태관광기반형으로는 서동생태관광지(익산)와 내장호 생태관광단지(정읍),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남원), 구천동 33경(무주), 성수 앞의 숲(임실) 등이 있다.

**반딧불이 탐사...도심 속 생태관광**  
△전주 삼천방벚꽃이 생태마을  
평화호 상권에서 원앙과 주변까지의 삼천방벚꽃이 대성하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와 늦가을벚꽃이 화제를 추진 중이다. 도시의 반딧

###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엿다 ② 지역별 특징

불이 탐사 등을 통해 도심 속 생태관광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인근의 정읍과 마을, 모악산 도립공원, 도립미술관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 45년간 출입 통제, 식생환경 우수

**△군산 청암산 에코랜드**  
육산면 청암산과 금성산, 군산저수지 일원과 원도심의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이 대상이다. 상수원 보호구역(63년) 지정이후 45년간 출입이 통제돼 수변부의 청암산을 중심으로 식생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와 2급인 가시연꽃,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조류 29종 등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암산 오토캠핑장, 전망대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

#### 인근 군부대 연계 특성성 확보 가능

**△익산 서동 생태관광지**  
금마면 금마생태관광지와 왕궁저수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며, 저수지 상류 황학천의 옛 도랑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우수 습지이며, 인근 군부대와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하면 독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동공원, 선동농촌테마공원, 둘레길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 생태 보전기지 우수...기반시설 풍부

**△임실 내장호 생태관광지**  
내장산 주변과 구천초대마공원 일대가 후보지다. 내장산 국립공원과 월영습지 등 생태적 보전기지가 우수하고 오솔길, 단풍터미널, 내장산탐방연수

원 등 생태적 기반시설도 풍부하다. 내장수목원, 조각공원, 천주교 신성공소등과 연계도 가능하다.

#### 다양한 야생화·노송군락지 갖춰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운봉을 고개로, 주천의 일원을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야생화 및 노송군락지를 갖추고 있다. 백두대간 마루금,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 둘레길, 백대봉 철쭉 등을 가지고 있으며, 화보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국악의 성지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 농경사회 특색한 생물 다양성

**△김제 백곡계 농경생태원**  
부암면 원평리와 백곡계, 금불저수지 일대가 대상지이다. 농경사회의 특색한 생태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농경생태문화와 특색성을 확보하는 생태관광지 조성 추진하고 있다. 원평전 생태하천을 복원 중이며, 청새도리치 전방대와 익새울, 벚꽃을 조성할 계획이다.

#### 화암사·대야수목원 등 연계 가능

**△완주 경천 심그림이 에코빌**  
경천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산봉계곡, 민들레동산, 경천저수지 등의 자연자원과 노루귀, 복수초, 엘레지 등 야생화 및 나무, 곤충 등의 생물자원을 갖추고 있다. 국보 316호인 화암사의 대야수목원, 위봉폭포, 반백제유적, 고산 자연휴양림, 조선시대 여타인 신그림이 원터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

#### 특이한 타포니지형, 지질자원 우수

**△진안 지오파크**  
마이산 마령지구와 운일암반일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마이산 돌사질 군락지와 청암해나무가 있으며, 마이산이 독특한 타포니지형으로 지질자원도 우수하다. 진안고원길과 마이산 북부 생태공원, 원안영 꽃잔디마을, 진안정적 공예공원, 산악로마촌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

#### 역유산-내도지구 있는 띠 형성

**△무주 구천동 33경**  
무주 덕유산지구와 내도지구를 잇는 띠를 형성 하려고 한다. 구천동 33경과 덕유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의 상류 하천으로 합소거리, 어룡지, 바들지, 등사리 등 생태자원도 풍부하다. 만리연도, 원문과학관, 외인동굴, 백운산 생태습, 국립태권도원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 금강 발원지,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장수 금강발원지 생태생태코프**  
장수를 수변의 둔황생과 장안산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강의 발원지로서 삼, 담비, 멧표이, 강도고기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대지 체험장, 논개사, 장안산, 빙화동 기류유기촌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

#### 왕간·이성계 건국설화 스토리텔링

**△임실 성수 앞의 숲**  
성수면 성수산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성수산 산 밑해탈지구 사설 및 사선대, 치즈마을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또 왕간의 특유한 문화유산과 상이암에

담긴 왕간과 이성계의 건국설화들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해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조성 가능하다.

#### 삼천강 상류 지형·지질경관 우수

**△순창 삼천강 장군목**  
동계면 삼천강 상류의 장군목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삼천강 상류의 지형과 지질경관이 매우 우수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삼, 새호리개, 붉은 배새매, 흰목원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인근의 유원산 치유의 숲, 차생식물원 조성 및 주변 강변마을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

#### 멸종위기 수달 등 생물다양성 높아

**△고창 운곡 탐사로 습지**  
아산면 운곡습지는 2011년 4월에 탐사로 습지로 지정되고 2013년 5월에는 생물보전지역, 2014년 12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삼, 담비, 구렁이, 새호리개, 팔색조 등 식물상 276종, 육상곤충 390종, 저서무추동물 24종 등 생물다양성이 높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과 선운산, 고창갯벌, 청보리밭, 고창읍성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 새만금·동진강 연계 생태관광 복원

**△부안 선운원 수생생태지역**  
부안을 선운의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식물상 105종과 곤충류 88종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과 동진강을 연계해 국제적 생태환경 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대장공원, 줄포만 갯벌, 반산반도, 반산마실길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성원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고창 운곡습지 생태연못.

### 멸종위기 수달 등 생물다양성 높아

**△고창 운곡 탐사로 습지**  
아산면 운곡습지는 2011년 4월에 탐사로 습지로 지정되고 2013년 5월에는 생물보전지역, 2014년 12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삼, 담비, 구렁이, 새호리개, 팔색조 등 식물상 276종, 육상곤충 390종, 저서무추동물 24종 등 생물다양성이 높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과 선운산, 고창갯벌, 청보리밭, 고창읍성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전북중영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020면 종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희귀종 서식 ‘생태의 寶庫’







## 주말/ 떠나볼까 -고창 운곡습지

고창군이 지난 13년 5월 유네스코로부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내에서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에 이어 고창이 5번째로 등재되었습니다. 고창에 지정된 핵심 생물권보전지역은 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을 포함해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운곡람사르습지가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운곡습지는 갯벌습지와 함께 그 앞에 '람사르'라는 말이 붙는데요. 그 뜻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자에 관한 협약입니다. 1971년 만들어진 람사르 협약에 고창 운곡습지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희귀종의 생태적 서식지로 그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등록되었습니다.

###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 삵, 말뚝가리 등의 생물이 서식

운곡습지는 생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폐경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되고 있어 자연에 의한 습지복원 사례로 활용가치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인돌박물관을 관람한 후 뒤쪽으로 걷다보시면 고인돌교라는 다리가 보이는데 이 다리를 건너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산들거리는 밭을 지나 걷다보면 운곡습지탐방안내소가 보입니다. 고인돌유적지와 탐방안내서 사잇길로 쭉 걸어가시면 쉽게 운곡습지를 찾아가 수 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보호 때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고인돌을 지나 밤나무길을 지나면 운곡습지 탐방로가 보입니다. 자연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탐방로가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너비로 굉장히 좁게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운곡습지의 자연환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초 운곡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주민이 이주한 후 계단식 논이 폐경되었는데요. 그 상태가 3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자연적으로 산지 저층습지의 습지 원형이 복원되었습니다.

운곡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잘 보전하기 위해 습지 곳곳에 물의 양을 측정하여 습지의 육지화 건조화 등을 분석하거나 기상관측을 하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간구간 습지관찰대도 설치되어 있으니 천천히 쉬어가며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해 보세요.

오로지 자연 속에서, 하늘이 높아져만 가는 맑은 가을하늘 아래 여름의 녹음보다는 한층 더 짙어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걷다보면 작은 습지가 나타납니다. 개구리발톱, 낙지다리, 어리연꽃 등등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찾아보세요. 어리연꽃입니다. 잎이 크고 웅장함과 고고함이 느껴지는 일반 연꽃에 비해 잎이 작고 꽃이 오밀조밀 아기자기한 맛이 느껴지는 어리연꽃! 한눈에 보아도 그 귀여움이 느껴지지요?

운곡습지에 가시면 이렇게 귀여운 곤충친구가 3D로 생생하게 눈앞에 있습니다. ^^ 도토리도 보이고요, 또 습지에서 발견한 놀라운 자연의 신비! 거미줄의 저 견고함이 보이시나요?

자연 그대로 낯것의 곳이라 화려함은 없지만 이렇게 작은 생물체 하나하나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임은 분명합니다.

화색빛에 지쳐 푸르름을 찾고 싶으시다면 고창 운곡습지로 가볍게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자료제공=전북의 재발견

생물권 보전지역 국내 5번째 등재  
생물서식 다양·원형복원 활용높아  
습지 보고 고인돌 박물관도 볼만

